
 인천광역시		<b>보 도 자 료</b>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12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당자	• 식품안전지도담당 박미애 ☎440-2771 • 담당자 이세연 ☎440-277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15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시, 식중독 예방대책 민·관협의회 개최**  
**- 26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‘식중독 예방대책 민·관협의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협의회에는 인천시교육청, 보건환경연구원, 군·구 및 위생단체 등 26개 기관이 참여했다.

식중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시 확산방지 및 신속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, 2022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및 문제점과 각 기관별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공유했다.

특히, 2023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집단급식소, 뷔페, 대형음식점 등의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△다소비 식품관련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△학교급식소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△계절별·사회적·이슈별 위생관리 △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

식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.

이를 위해 △식중독 의심 신고 발생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원인·역학조사반 비상연락망 정비 △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노인 및 아동관련 시설 점검시 정보 공유 △위생단체 교육시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등 민·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.

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식중독은 계절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식중독 관리부서와 감염병 관리부서,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대응체제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”라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16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